

피서객 맞이 한창인데 웬 공사?

화순금모래해수욕장서 대규모 준설 공사 진행중 7월 개장 피서객 발길 속 각종 안전사고 등 우려 도 “계획에 맞춰 공사 중... 마을회 동의도 받았다”

7월부터 개장해 본격적으로 손님맞이에 나선 서귀포시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 대규모 준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과 불과 50여m 떨어져 지는 곳에서 준설 공사가 진행되며 피서객 등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2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내에서는 대규모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화순항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등 공사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굉음도 주기적으로 울려 퍼졌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순항과 맞닿아 있는 화순금모래해수욕장은 최근 개장해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내에서는 대규모 준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안전 우려는 물론 미관 저해 등 불편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화순금모래해수욕장에서는 다수의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반면 해변과 불과 50여m 떨어진 해상에서는 바지선이 커다란 추를 바다 밑으로 떨어뜨린 뒤, 침전물 등을 끌어 올리는 준설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때문에 해상에는 물보라가 일었고 수질을 혼

탁하게 만들었다. 특히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굉음에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피서객 송 모(32)씨는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듣고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고 소문난 화순금모래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사전에 공사정보를 알았다면 다른 해수욕장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피서객 김 모(45)씨는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손님 맞이가 덜 된 것 같다”면서 “어린이들도 있는데 해변 주변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으로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는 총 사업비 347억원을 투입해 2026년 4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도는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마을회의 등의 뜻을 얻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해 개장 이후에도 공사를 추진하고자 마을회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아직 특별한 불편사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욕장 개장 이후 지속적인 공사 추진 여부에는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2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소재한 화순금모래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해변과 불과 50여m 떨어진 곳에서는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오영훈 도지사가 2일 약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민선 8기 후반기 민생투어 ‘첫발’ 오 지사, 어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찾아 “주민 생활불편 해소 위해 요구사항 적극 수용”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투어를 시작했다. 민생투어를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들을 직접 점검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오영훈 지사는 첫 방문지로 2일 제주시 도두동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을 찾아 환경문제와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도에 따르면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

과, 약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해당 시설은 2028년 1월 완공 예정이며 하수처리시설 22만㎡/일(기준 13만, 증설 9만), 해양방류관로 1.5km 등의 규모로 진행되며 지난해 4월 28일 시공 공사에 착공해 현재 전체 공정을 8.5% 보이고 있다.

오 지사는 현장에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신사수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에서는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과 관련해 주민

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약취, 비산먼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신사수 포구로 유출되는 방류수 문제에 대한 개선과 신사수포구 일대 준설작업 등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신사수마을 공사환경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 8기 하반기 민생투어는 오는 8월까지 이뤄지며 도는 도정 주요정책, 민생경제, 분야별 공약사업장 등을 살펴보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현장을 찾은 방침이다.

두 번째 민생투어는 3일 오전 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이다. 백금탁기자

제주시 자기차고지 이용 전수조사

1697개소 2895면 대상 목적의 사용·훼손 등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697개소(2895면)를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성 연도별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2017~2023년에 조성돼 의무 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169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 여부, 멸실·훼손 등이

다. 위반이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지만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목적 외로 사용 중인 자기차고지 26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24개소는 현장 시정 조치해 원상회복을 마쳤고 미이행 2개소는 보조금을 환수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독자제보 750-2232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지방하천 손본다 제주시, 40억 투입해 삼수천·수산천 호안 등 정비

제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삼수천과 수산천 등 지방하천 2곳에 대한 신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하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태풍·풍수해 피해를 종합적으

로 검토해 하천 호안, 교량 재가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삼수천 정비 사업은 지난달 18일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 착공 예정 시기는 2025년 1월로 제주시 화북2동 140-8번지~도련1

동 2740번지 구간에서 호안(1.17km) 정비, 교량 2개소 재가설 공사가 진행된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

수산천 정비 사업은 7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10월 착공할 계획이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412-4번지~구엄리 355번지 구간에서 호안(552m) 정비, 교량 2개소 재가설 공사가 실시된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2월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 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팽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 감귤 무병묘 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 보정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항시판매 가능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 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 www.dainfine.com

DA IN 다인산업(주) |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